

# 음식이 짜다? 음식의 상징을 맛보여 주마!

## 음식에 관한 민족지학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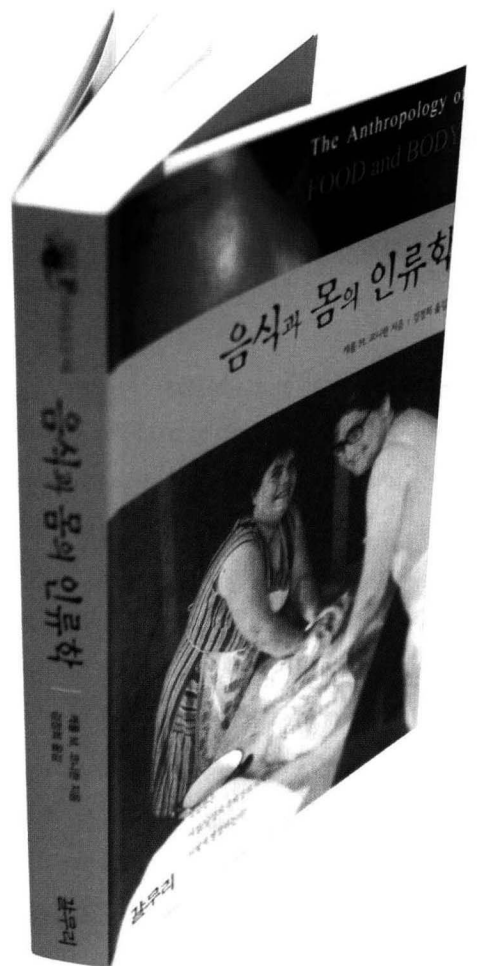
글 | 김정희

독이 있는 복어 요리, 숫양의 고환으로 만든 파이, 썩은 홍어 요리, 성욕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수소의 고환 요리, 상어지느러미, 제비집 전복 스프... 이런 모든 음식은 세계 도처에서 고급 요리 메뉴에 들어간다. 미국 음식의 대들보라 할 수 있는 햄버거는 힌두교도들에게는 금기 음식이다. 돼지고기는 유대인과 이슬람교 사회의 식사 메뉴에선 제외된다. 단백질 덩어리인 곤충 1,400여 종 이상이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라틴 아메리카에서 '소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식당에서 이런 기어 다니는 벌레를 찾기란 힘들다. 이처럼 음식은 나라나 지역에 따라 금기 혹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선호식품이 될 수도 있다.

캐롤 M. 코니한은 “금기 음식과 선호 음식은 문화, 종교적 믿음 혹은 희귀성 등의 이유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다”며 “그러한 음식들은 사람들의 주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고환과 같은 동물의 일부분을 먹으면 그 기관의 기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말한다. ‘음식은 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이고, ‘음식은 모든 문화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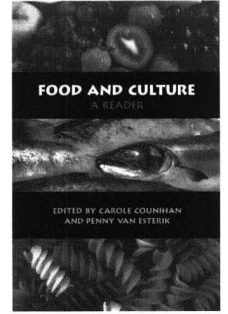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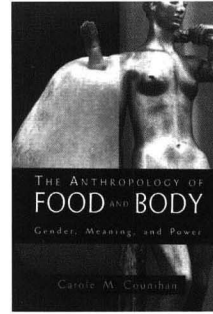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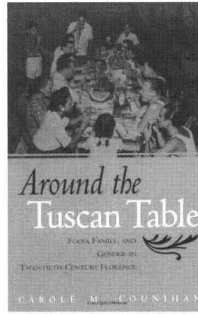
우리는 ‘음식과 문화’라는 영역에서 캐롤 코니한이라는 이름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1970). 이후 인류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매사추세츠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음식, 문화 그리고 정치 경제 : 보사의 사르데냐 사람들의 변화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탐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81). 그녀는 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을 통한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음식을 단순한 에너지 제공원이나 영양공급원으로 보지 않고, 음식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관습 혹은 규칙 등을 중심으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음식 소비에 관한 규칙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해 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코니한은 음식을 사회적 관심사의 상징적 의미로 보았다. 즉 음식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상징적 세계에 질서를 주는 것으로 보았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밀러스빌 대학의 인류학과 교수이자 민족지학자인 그녀는 인류학과 여성학, 그리고 라틴 문화와 아프리카-아메리칸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인류학에서 음식, 문화, 성 사이의 관계 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음식에 관련된 믿음의 다양성과 그 믿음이 어떻게 성 이데올로기에 반영되고, 영향을 주는지를 살피기 위해 미국과 더불어 이태리의 사르데냐와 플로렌스 등지에서 민족지학(ethnography)적 연구를 하는 등



● 《음식과 몸의 인류학》  
캐롤 M. 코니한 지음 | 김정희 옮김 | 갈무리 | 462쪽 | 값 16,000원

- 코니한이 쓴 《토스카나식 식사》《음식과 몸의 인류학》《음식과 문화》. 그녀는 여러 학문의 공동체휴 성격의 학술잡지 <식품과 식생활 Food and Foodways> 공동편집장이기도 하다.



여러 문화를 비교하였다.

그녀는 여성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단식과 거식증이나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많은 문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식을 고찰하였고, 날씬해지기 위한 다이어트, 즉 현대사회의 여성단식과 권위주의에 맞서기 위해 이루어졌던 중세 여성들의 종교적 단식을 비교하여 왜 여성들이 단식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등 여성학에 관한 많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스카나식 식사 : 20세기 플로렌스에서의 음식, 가족, 성별》(*Around the Tuscan Table : Food, Family, and Gender in Twentieth Century Florence*) (2004)을 저술하였다. 또한 필자가 번역한 《음식과 몸의 인류학》(*The Anthropology of Food and Body : Gender, Meaning and Power*) (1999) 외에도 《미국에서의 음식》(*Food in the USA*) (2002)과 《음식과 성: 정체성과 파워》(*Food and Gender: Identity and Power, Gordon and Breach*) (1998), 《음식과 문화》(*Food and Culture*) (1997)를 편집하였다.

그녀는 여러 학문의 공동 체휴 성격의 학술잡지로 인류 발달에 관련된 문화와 역사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는 <식품과 식생활》(*Food and Foodways*)의 공동편집장이다. 이 저널은 인간관계에서 음식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음식이 만들어내는 강력하면서도 미묘한 여러 변화, 즉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정신적, 영양적, 도덕적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탐구하고 있다. 음식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인류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은 어떤 한 가지 원칙에 의해서만 접근하여 탐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코니한은 각 분야에서 분석의 주제로서 음식을 사용하는 인류학자, 생물학자, 경제학자, 민속식물학자, 역사가, 영양학자, 사회학자 등의 글을 통해 음식의 생물학적 본질뿐 아니라 음식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코니한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의 음식문화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슬로우푸드운동 보급을 위해 1년에 4번 편찬되고 있는 <슬로우 : 국제 슬로우푸드운동 잡지》(*Slow : the Magazine of the International Slow Food Movement*)의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역시 인류학자인 남편 짐 타가트(*Jim Taggart*)와 함께 콜로라도의 샌루이스 계곡지역에서의 음식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그들 삶의 역사를 연구·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음식과 몸의 인류학》을 번역하면서 그녀의 페미니스트적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존재해 있는 여러 가지 음식에 관련된 생각이나 규칙을 특별히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김치가 짜다. 사랑이 식은 게지.” 최근 모 광고에 나오는 말이다. 음식을 사랑으로 보았다. 음식에 의미를 불어넣음과 동시

에 여자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남자는 음식을 평가하고 투정하는 위치를 가지게 된다. 같은 밥상에서 남자가 음식을 게걸스레 먹으면 씹씹하고 남성답게 먹는다고 평가하고, 여자가 그렇게 먹으면 돼지 같다느니, 살찐다느니 하며 여자를 하위화한다.

바로 코니한의 저서를 읽다보면 거창한 정치나 경제는 제쳐두고라도 일상적인 음식섭취가 우리의 성이미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성이미지에 따른 여성 신체의 대상화는 우리 문화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의 하위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여성 신체의 이미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흥미롭게 고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자유롭게 먹을 권리가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반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외모로 보이는 그 이상의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할 권리가 있음을 배우게 된다.

무엇보다 코니한은 연구, 저서, 그리고 많은 세미나를 통해 문화나 인류학이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학문이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임을 깨우치게 해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글**

#### ● 이 글을 쓴 김정희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직제복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 미시간 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전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와 전주기전여자대학에서 식품과 화학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참치예교양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평생교육에 힘쓰고 있다.